| 불자 세상보기 |

총무원장 선거에 대한 小考



성태용
前건국대 철학과 교수

교단 안팎으로 위중한 시기라는
설정 스님 당선 소감 매우 공감

무사히 끝난 선거에 잡음 '無用'
하지만 적당히 넘어가서도 안돼
'가라앉는 배' 되지 않기 위해서
새 집행부 뼈 깎는 아픔 감내해야

멈추는 순간 쓰러진다는 각오를
신임 총무원장 스님께 충언합니다

"지금은 교단 안팎으로 매우 위중한 시기다." 새로 총무원장에 선출된 설정 스님이 당선 소감에서 한 말이다. '매우 위중한 시기'라는 말에 모든 불자들이 공감할 것이다. 아니 그러한 말 정도로는 우리 불교 종단의 위기를 다 말할 수 없다고 외치는 불자들이 훨씬 더 많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위기감을 느끼게 하는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승단의 문제라는 것도 틀림없다.

도대체가 왜 총무원장 선거를 한번 치를 적마다 모든 불자들이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인가? 어찌하여 속인들의 선거보다도 더 잡음이 많고, 청정성을 의심케 하는 일들이 무더기로 쏟아지는가?

무사히 잘 끝난 선거를 두고 괜스레 잡음을 만든다고 해서는 안 될 일이다. 하지만, 적당히 넘어가고 넘어가면 나중엔 어찌 될 것인가? 한국불교는 가라앉는 배가 될 것이요, 총무원장 선거는 가라앉는 배의 선장을 다투는 일이 될 것이다. 아니 그 가라앉는 배를 더더욱 빠르게 가라앉게 하는 촉매 역할을 할 것이다.

너무 모진 표현 아니냐는 비난을 각오하고 '가라앉는 배'라는 표현을 쓴 필자의 충정을 이해해 주시리라 믿고, 아예 한 걸음 더 나아가 볼까 한다. 객관적인 사실로 보면 이미 한국불교는 가라앉는 배라 할 수 있다.

무엇이 객관적인가? 우선 스님의 수가 그러하다. 그리고 신도의 수가 또한 그러하다. 조계종 스님의 수가 1만 3천 명이 되지 않는다. 다른 종단 다 합쳐도 그리 늘지 않을 것 같다.

불교가 탄압받던 시절, 인구수는 1,000만 명 정도로 잡아도 많을 것 같은 조선왕조 성조 때 5만의 도첩이 발행되었다 한다. 아무리 다종교 시대라 하더라도, 2대 종교에 들어가는 불교의 승려 수를 생각하면 터무니없이 적지 않은가? 거기에 지금 출가자의 추세를 보면 해마다 더 적어지고 있다. 이것만 보아도 가라앉는 배가 아닌가?

신도 수는 또 어떤가? 젊은 불자들의 수는 정말 타 종교와 비교하면 부끄러울 정도로 적고, 전체 불자의 수도 급격한 감소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통계상으로 드러나고 있다. 승려 수와 신도 수가 이렇다면 가라앉는 배가 아니고 무엇인가? 그런데 그 가라앉는 배의 선장을 뽑는 일이 그 배를 더더욱 가라앉히는 모습을 보인다면 정말 답이 없다는 것이다.

이번 선거의 총무원장 후보들이 그렇다는 말이 아니다. 설정 스님이 당선소감에도 밝혔듯이 모두 한국불교와 조계종단의 위기에 대한 투철한 인식을 바탕으로,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사명감에 충만하실 것으로 믿는다. 그렇지만 현 상황이 너무나 심각하기에 천만 불자들은 그 충만한 사명감이 더더욱 충만한 모습으로 구현되기를 바란다.

우선은 총무원장 선거로 더더욱 위태롭게 드러난 청정승단의 모습을 회복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앞에서 말한 '가라앉는 배'라는 표현이 나오게 만드는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적당주의가 통할 때는 이미 지났다. "설마 그럴까"하는 의구심으로 넘어가는 불자들의 의심도 그냥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넘어갈 수준은 이미 지났다. 아프더라도 사실을 사실로 밝히고, 뼈를 깎는 아픔을 각오하지 않는다면 골수에 든 병을 치료할 길이 없다.

설정 스님의 당선 소감에는 "달리는 말은 발굽을 멈추지 않는다"는 말씀도 있었다. 그 말씀에 정말 모진 말을 덧붙여야 할 것 같다. "멈추는 순간 쓰러진다는 각오로 임해 주십시오"라고. 우리 불교 종단의 현황이 잠시라도 노를 멈추면 더더욱 가라앉는 배와 같다고 보는 것이 필자만의 쓸데없는 걱정이 되도록, 필자의 구업을 좋은 결과로 회향해주시기를 바라며 드리는 말이다.



사유의 숲을 거닐며
송마나 작가

세이렌 노랫소리와 부테스

아침저녁으로 쌀쌀한 날씨에 몸이 움츠러드는데 TV 화면에서는 젊은이들이 깊은 바닷물 속으로 거침없이 뛰어내린다. 꽃송이들이 터지듯 하얀 포말을 흩뿌리며 물속으로 낙하하는 그들의 모습은 아름답다. 비단 바다가 아니더라도 물만 있으면 사람들은 물속으로 뛰어든다. 왜 인간은 물속으로 뛰어드려는 본능이 잠재하는 것일까?

지상 최초의 다이버는 '부테스'였을 것이다. 그는 이아손과 함께 황금 양털을 찾는 아르고호의 모험에 참가했는데, 세이렌의 노랫소리에 홀려 아르고호의 선원 가운데 유일하게 바다로 뛰어들었다. 물거품 속에서 태어난 아프로디테가 그를 물속에서 끄집어내어 대기 중으로 데려가는 동안에 에릭스를 수태했다.

세이렌의 노랫소리가 얼마나 매혹적이었으면 부테스는 노를 젓던 손을 멈추고 홀로 갑판으로 올라가 바다로 뛰어내렸을까?

나는 사람들의 넋을 빼앗아 갔던 세이렌의 노랫소리가 듣고 싶었다. 그래서 이태리 남쪽에 있는 카프리 섬의 마리나 피콜라 해변의 협소한 틈새에 있는 '세이렌들의 바위'로 배를 타고 나아갔다. 지중해의 파란 파도가 암초 사이의 바위 동굴 속으로 포효하듯 밀려들었다. 얼마 후 깊이를 알 수 없는 어두운 동굴은 하얀 포말을 뱉어냈다. 쏟아져 나온 물거품은 '세이렌들의 바위'를 따라 하늘로 솟아올랐다. 흡사 새들이 비상하듯.

오디세이아가 몸을 돛대에 밧줄로 꽁꽁 매어두고 세이렌의 음악을 즐겼듯이, 나도 몸을 의자에 붙들어 매지 않았다면 작은 배가 암초와 '세이렌들의 바위' 사이에서 소용돌이치느라 몸이 바다 속으로 튕겨 나갔을 것이다.

밀랍을 바르지 않은 나의 두 귀에는 삐죽삐죽한 바위에 부딪치는 파도소리가 들렸다. 새소리를 들었는지도 모른다. 해안에서 떨어져 파도가 잔잔한 바다 위의 요트에서는 벌거벗은 젊은이들이 부테스처럼 바다 속으로 풍덩풍덩 뛰어내렸다.

부테스는 새들이 내는 여인의 노랫소리에 끌려서 바다 속으로 뛰어들었을 것이다. 그리스어로 새를 세이렌이라 부른다. 여자의 젖가슴을 지닌 새의 목소리가 부테스를 불렀다. 근원의 모태(母胎)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남성이 겪는 변성기가 없는 여성의 맑고 깨끗한 노랫소리이다.

조르쥬 바타유는 〈라스코 혹은 예술의 탄생/마네〉에서 라스코 동굴에 그려진 벽화 가운데에서 세 개의 장대 위에 새가 앉아있는데 이것은 샤먼들이 '새 코스튬'을 걸친 것의 원형으로 하늘로 날아오르는 새의 본성, 즉 본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했다.

세이렌은 부테스에게 우리가 있는 이곳으로 오라고 노래했다. 부테스는 예전에 어머니의 양수 속에 있었다. 그곳에서는 오직 어머니의 음성만이 들려왔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기원의 내부에서 울리는 노랫소리이다.

부테스만이 아르고호에 타고 있던 50명의 선원들 가운데서 어머니의 노랫소리를 알아들었다. 그래서 그는 망설임도 없이 존재의 근원을 향하여 몸과 마음을 송두리째 내던졌다. 인간이 부테스처럼 물로 뛰어드려는 욕망은 우리 안에 근원으로 회귀하려는 본능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社說

VR 활용한 새 포교전략 세우자

불교계에서 가상현실(VR) 기술을 활용한 문화콘텐츠가 제작되면서 새로운 포교지평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보수적인 성향 탓에 사회변화와 시대 흐름에서 항상 뒤처져 있던 그간의 한국불교와는 다른 모습이어서 반가움이 앞선다.

VR을 기반으로 한 콘텐츠 확산은 이미 일반사회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VR은 내년 2월 개최를 앞둔 평창동계올림픽을 비롯해 정부와 국내외 주요기업들이 신 산업콘텐츠로 준비하는 분야이고, 각 지역 도심에는 VR카페 · VR게임존 등이 들어서는 추세다. 이에 발맞춰 불교계가 템플스테이 · 사찰음식 · 사찰안내 등을 주제로 VR영상 서비스에 나선 것은 박수 받을 만하다. 아직 초기단계인 만큼 뛰어난 기술력이 적용되진 않았지만 앞으로의 변화 가능성을 엿볼 수 있어 새로운 포교콘텐츠로 자리 잡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당장의 과제는 불교계가 간직한 고유의 역사 · 설화 · 가르침 · 자연환경 등을 어떻게 VR기술로 대중에게 풀어낼 것인가이다. 대중이 이를 통해 불교문화에서 감동을 느끼게 된다면 수요는 더욱 늘어나게 되고, VR기술과 불교콘텐츠 기획력은 자연스레 발전할 수밖에 없다.

이제는 불교계가 VR을 비롯한 최신 기술 교육을 통해 전문가 양성에 나설 때다.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최신기술에 관심이 높은 만큼 이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시급하다. 아울러 불교계 내에 관련 직업군 활동무대를 조성해 미래세대 포교에 힘을 실어야 한다. '인재양성'을 표면적으로만 강조해온 불교계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란다.

문화재청, 변화가 필요하다

문화재청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부실한 문화재 복원과 보존 · 관리 행정으로 여 · 야 의원들에게 날선 비판을 받았다고 한다.

10월 1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주최로 열린 문화재청 국정감사는 성토의 장이었다. 여 · 야 의원들의 문제 제기는 다양했다. 사찰 목조문화재 화재보험 가입부터 저화질 CCTV 문제, 미황사 천불도 훼손까지 불교와도 직 · 간접적인 부분이 많았다.

이 중 몇 가지는 고질적으로 지적돼 온 문제이지만 개선되지 않음이 확인됐다. 대표적인 것이 사찰 목조 문화재 화재보험이다.

조훈현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사찰 목조문화재 화재보험 미가입률은 66.3%에 달한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경주 불국사와 합천 해인사 장경판전도 화재보험에는 가입돼 있지 않다고 한다. 그런 의미에서 "문화재청이 종단과 협의 하에 가입을 독려하고, 보험료 지원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조 의원의 지적은 의미가 있다.

미황사 천불도 문제는 종단 차원의 조사와 대응이 필요한 부분이다. 복원이 아닌 훼손된 경위와 해결 방안들에 대해 종단 안팎의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 해결해야 한다. 또한, 특정업체만이 지속적으로 사업을 맡게 된 이유에 대해서도 조사돼야 한다. 문화재청도 부실한 복원을 허락한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올해 초 문화재청은 불통 행정으로 조계종과 마찰을 빚은 바 있다. 당시 본지는 문화재청의 불통 행정에 대해 "최순실의 국정 농단과 같다"고 비판했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지만, 행정은 그다지 달라지지 않았다. 이번 국정감사를 계기로 문화재청의 행정에 변화가 있길 바란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 · 세계화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겸 편집인 : 박종수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 북 지 사 : (063)910-8977
부 산 지 사 : (051)405-9402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하기책자 5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0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전생의 빚을 소멸시켜 자신의 운명을 바뀌게 하는"

생전예수재기도의 중요성과 그 성취효과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생전예수재는 "왜" 필히 지내야만 하는가?
② 생전예수재 신청 및 집에서 기도하는 방법
③ 생전예수재 기도후 일어난 영험사례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 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768-8413

영혼의 세계(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 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

천 광 수 련 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